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과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景太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5-9551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7-8133 사무실

中央共販場運營活性化

現在까지의 未支給金 清算으로 信賴度向上

名譽會長 日日勤務制 實施로 活性化圖謀

◇공판장 현장

協會는 黑字전환을 爲한 布石으로 一部人員의 補強과 未支給金의 一切 清算, 그리고 現物去來者에 對한 早期決裁處理를 實施하기로 決定하였다.

協會는 부대사업으로 中央共販賣場을 附設한지 (74년도) 어언 17年의 經綸을 쌓아왔다. 그동안 直營↓수차례의 自營(임차경영)↓直營으로 轉換하면서 黑字經營을 모색해 왔으나 괄목할 만한 成果를 얻지 못하고 현상유지에만 급급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다. 設立當時와 오늘날은 經濟질서의 변천이 너무나 심해 보따리物件을 않고 결동市場에서 팔릴때까지 하루이틀 묵다보면 빈손 들고 귀향하는 일이 비일비재였던 현실을 감안해서 委託販賣制度를 도입 荷主의 便宜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大部分의 會員은 人氣品種이고 손쉬운 物件은 當事地에서 처리하고 在庫品이 되고 처리하기 어려운 物件만을 골라 協會共販場에 그처리를 위탁한 것도 또한 事實이였다. 이래저래 잘 팔리지 않는 物件만을 가득 쌓아놓고 있다보니 早期결재를 要望하는 荷主들에게 호된 不滿과 꾸지람을 듣게된 일이 하두번이 아니였다.

그래서 去來雙方이 所得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월에 한쩍씩 物品 보내기運動, 판촉활동의 독려로 위탁物品의 초기처리 또는 事業希望者(理事)에게 賃借經營하는 方式 등 多角度로 經營전환을 모색해 보았으나 結論的으로 流通資金의 不足因이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好轉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라고 볼 수 있다. 全國이 日日生活권으로 電話한통이면 全國時勢를 다 알 수 있고 現金이 아니면 去來를 하지 않는다는 現世개념을 감안할때, 앉아서 팔아줄 때까지 또는 위탁手數料만을 받아 경영하는 方式은 世代差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協會는 여러모로 검토를 거듭한 끝에 우선 全國的組織으로 擴大된 分事務所長을 相對로 쓸만한 物件을 의무적으로 系統出荷하도록 協助를 組織하고 現物去來者에 對한 早期決裁處理를 實施하기로 決定하였다.

이제 時急한 懸案問題를 部分的이나마 解決한 상태임으로 傘下 各級分事務所長과 會員들께서는 보다 心機一轉하여 組織活用의 묘미를 재의식하시고 共生共存하는 길은 뜻에서 좋은 物品을 선별하여 月에 한번씩이라도 기필코 系統出荷해 주실 것을 심심 當付드리는 바입니다.(協會任職員一同 올림)

알림니다

「本報 8月20日字號는 本會 事情으로 休刊하였음을 諒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連載 韓方순례 >26<

〈續〉

손톱에 의한 진단

1、손톱은 담낭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최근에 손톱화장이 한창 유행이다。

아니 유행이기보다 화장에 대한 현대여성들의 안목이 넓어졌다고나 할까?

봉숭아 꽃잎을 따다가 소금돌에 짓찧어서 손톱에 연분홍물을 들이던 토속적인 낭만을 이제는 시골의 처녀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 손톱의 화장은 서양의 예를 들면 기원전으로거슬러올라간는모양이다。

사실 미(美)의 동경은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 거칠어진 농부의 딸의 손가락、손톱에、그래도 봉숭아 물을 들일 때 그 소박한 미는 현대의 고도로 발달한 화학제의 화장품으로 윤기가 돌면서 봉숭아빛으로 혈색이 감도는 손톱일 것이다。

어떤 인위적인 화장의 미도 건강한 자연의 미는 따르지 못한다。

여성의 경우 지나친 화장으로 손톱의 각질마저 변형시켜서 이 손톱을 통한 중요한 자기 진단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또하나의 비극임에 틀림없다。

손톱은 간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간장은 근(筋)을 관장하고 있는데 손톱은 근육의 한 변형일 뿐이기 때문에 간장의 관할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톱을 관찰하는 것은 바로 간장의 진단으로 연결되며 간장과 담낭과는 표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담낭의 상태도 반영되는 것이다。

2、손톱으로 열 두 가지 병변을 살펴본다

①손톱이 황색일 경우

손톱이 두터우면서 그 색깔이 황색일 때 담이 두껍

②손톱이 얇을 경우

손톱이 얇으면서 색깔이 선명한 홍색(紅色)일 때 담이 얇다。

③손톱이 굳을 경우

손톱이 굳으면서 그 색이 푸를 때는 담은 급하다。

④손톱에 윤기가 있을 경우

손톱에 윤기가 있으면서 그 색이 붉을 때는 담이 완만하다。

⑤손톱이 검을 경우

손톱이 보기 흉하면서 색깔이 검고 줄이 나 있는 것은 담이 막혔다。

⑥황달의 경우

손톱에 노란색이 나타나며 황달 기운이 있다。

⑦병자의 경우

병자가 몸이 마르고 손톱이 선명하게 붉으면 음허의 상태에서 화가 성한 임장이며 담색일 때는 폐와 위가 허한(虛寒)의 상태다。

⑧혈허의 경우

손톱이 희어지면 혈허이기 때문이니 이때는 색이 다시 원색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⑨회복의 징조

손가락으로 손톱을 누르면 희어지고 떼면 즉시 본래의 붉은 색깔로 되돌아올 때는 오랜 질병일지라도 회복의 징조를 보는 것이지만 누른 손가락을 놓았을때에도 붉은 본래의 색깔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발병직후의 악화되는 진행성과 같은 것으로 좋지 못한 징조인 것이다。

⑩손톱이 검푸른 경우

손톱이 검푸른 색깔을 띠면 죽음에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⑪손톱에 줄기가 생겼을 경우

손톱에 줄기가 생겨 그 줄기를 따라 붉북 나오든가 우묵 들어간 형태가 되든가 밭숟가락처럼 우묵패이는 형태는 대부분 손톱의 영양이상을 나타낸다。또 손톱끝 전체가 말리는 듯이 숟가락같이 밖으로 굽어진다면 이는 민혈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흔히 잘 나타나는 예증이다。

祝 發展

◇전라남도지부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지부장 박상태
보성군 사무소장 정형모 (도공판장장겸직)
구례군 〃 정일영 (공판장장겸직)
승주군 〃 라한주
해남군 〃 박종근 (공판장장겸직)
목포시 〃 최병조 (공판장장겸직)
여수시 〃 송태헌 (공판장장겸직)
광양군 〃 장영철 (공판장장겸직)
순천시 공판장장 서중석
승주군 〃 임태길
동광양시 〃 서상선
순천시 사무소장 이상환
영암군 〃 양환수 (공판장장겸직)
함평군 사무소장 박기철
강진군 〃 김방제
고흥군 〃 명영덕 (공판장장 겸직)
완도군 〃 황준수
장흥군 〃 최윤경
여천군 〃 조기윤 (공판장장겸직)